

한국전쟁 체험담을 통해 본 역사 속의 남성과 여성*

- 우리 안의 분단을 넘어서기 위하여

신동훈**

1. 들어가는 말
2. 전쟁상황 속의 남과 여, 그 단면적 초상
3. 여성이 겪은 전쟁, 남성이 겪은 전쟁
4. 남성과 여성의 전쟁기억, 그 사이의 간극
5. 맺음 : 분단의 서사 또는 서사의 분단 넘어서기

<국문요약>

이 연구에서는 현지조사를 통해 수집한 한국전쟁 체험담을 자료로 삼아 역사체험을 전하는 이야기에 있어 남성과 여성의 경험과 기억 및 말하기 방식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살펴보았다.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하여 남성과 여성이 서로 어떻게 다른 경험을 했으며, 그 경험을 어떻게 다르게 의미화하는지를 단면적으로 살펴보는 논의였다.

주요 한국전쟁 체험담 자료에 나타난 남성과 여성의 형상에는 지나칠 수 없는 큰 차이가 있었다. 그 차이를 핵심적으로 요약하자면, 여성들이 가족과 생활을 무겁게 짊어져 온 데 대하여 남성들은 대개 제 혼자 몸을 챙기며 전쟁 속을 움직여 왔다는 것이다. 전쟁 속의 여성들에게 있어 늘 그 곁에 남편과 자식, 시댁식구와 같은 가족이 있었고 그들을 챙기기 위한 분투가 이어졌던 것과 달리, 많은 남성들은 가족을 포함한 주변사람을 2차적 존재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09-361-A00008; 인문한국(HK) 사업 “소통·치유·통합의 통일인문학”)

**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로 치부한 채 자신의 안위에 관심을 집중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쟁을 기억하고 말함에 있어 많은 여성들이 가족과 주변 사람을 떠올리고 그에 얽힌 고난을 이야기하는 데 비하여 남성들은 이야기의 중심에 대개 자기 자신이 있으며 전쟁의 경험을 하나의 흥미진진한 무용담처럼 구연하곤 한다. 이러한 차이는 역사적 삶에 있어 남성과 여성 사이에 삶의 분단 내지 서사의 분단이 가로놓여 있음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분단의 서사, 또는 서사의 분단이라고 하는 벽을 어떻게 허물어 넘어설까 하는 것인데, '나'와 함께 '또 다른 나'로서 가족을 몸과 마음으로 품어왔던 여성들의 삶에 작동해 온 '포용의 서사'를 주목해야 한다고 여겨진다. 닫힌 몸과 마음을 열어 나의 가족과 이웃을 끌어안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그렇게 내 안으로부터 열림이 이루어져야만 진정한 소통과 통합이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핵심어 : 한국전쟁(6.25), 역사경험담, 참전담, 피난담, 전쟁기억, 말하기 방식, 가족, 분단의 서사, 포용의 서사

1. 들어가는 말

이 연구는 구술 전쟁체험담을 통해 사람들이 비극적 역사를 어떻게 체험하고 기억하며 말하는지를 새롭게 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술 자료를 통해 분단과 전쟁을 돌아보는 작업은 그간 적지 않은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그 대부분은 역사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¹⁾ 역사적 관점의 구

1) 한국전쟁과 관련한 구술사적 연구 성과는 매우 많다. 그 중 주요한 것들을 발표순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김귀옥, 『월남민의 생활 경험과 정체성-밀로부터의 월남민 연구』, 서울대 출판부, 1999; 이용기, 「마을에서 한국전쟁 경험과 그 기억-경기도의 한 '모스크바'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6, 2001; 윤형숙, 「한국전쟁과 지역민의 대응: 전남의 한 동족마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제35집 2호, 2002; 윤택림, 「인류학자의 과거 여행: 한 빨갱이 마을의 역사를 찾아서」, 역사비평사, 2003; 표인주 외, 『전쟁과 사람들-아래로부터의 한국전쟁 연구』, 한울아카데미, 2003; 이임하, 「여성, 전쟁을 넘어 일어서다」, 서해문집, 2004; 김현아, 『전쟁과 여성-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속의 여성, 기억, 재현』, 여름언덕, 2004; 김경학 외, 『전쟁과 기억: 마을 공동체의 생애사』, 한울아카데미, 2005; 이성숙, 「한국

술자료 연구는 ‘정보’와 ‘사실’을 축으로 하여 역사에 접근하며, 특별한 역사적 사건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던 특수 경험자를 주 대상으로 삼는 것이 보통이다. 이에 대해 이 논문은 보통사람들이 전하는 구술담화에 대한 문학적 관점의 접근을 통해 전쟁이라는 상황 속의 인간과 삶을 새롭게 조명하고자 한다. 문학적 관점에서 한국전쟁 체험담을 수집하고 분석한 사례는 최근 제출된 몇 편의 연구가 있을 뿐으로,²⁾ 이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는 지점에 있다.

이 글이 지향하는 문학적 접근의 핵심 사항은 구술자들이 기억하여 재현하는 경험을 정보나 사실로 환원하는 대신 그로부터 살아있는 총체로서의 인간과 삶을 투시한다고 하는 것이다. 추상성보다 구체성을 중시하고 해체보다 통합을 추구하는 접근방식이 된다. 이때 방법론적 축을 이루는 요소는 문학적 담화로서의 ‘이야기’가 된다. 역사적 경험을 일련의 서사적 구성과 구체적 형상성을 갖춘 이야기 형태로 전하는 담화들은 과거에 문헌 삶의 양상을 상상을 통해 재체험하는 적극적인 정신 활동을 통해 발현된 것으로서, 경험적 사실 외에 사람들의 사유구조까지를 함축한 살아있는 문학 텍스트로서 의의를 지닌다.³⁾ 수많은 역사적 사실과 정보로써 미처 짚어내지 못하는 역사의 이면적 진실을 한 편의 잘 짜인 체험담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시각이다.

전쟁에 얽힌 삶 가운데 이 논문에서 기본 화두로 삼을 화두는 남성과 여성의 문제다. 전쟁기의 삶 속에서 여성과 남성이 서로 어떻게 다른 삶의 방식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주요 담화 자료를 통해 단면적으로 살펴본 다음, 여성과 남성이 일반적으로 전쟁을 어떻게 다르게 기억하여 내면화하고 있

전쟁에 대한 젠더별 기억과 망각, 『여성과 역사』 제7집, 2007; 안태윤, 「딸들의 한국전쟁-결혼과 섹슈얼리티를 중심으로 본 미혼여성들의 한국전쟁체험」, 『여성과 역사』 제7집, 2007; 윤정란, 「한국전쟁과 장사에 나선 여성들의 삶」, 『여성과 역사』 제7집, 2007; 김귀옥 외, 『전쟁의 기억 냉전의 구술』, 선인, 2008; 이임하, 『전쟁미망인, 한국현대사의 침묵을 깨다』, 책과함께, 2010.

2) 김종균, 「지리산 인근 여성 생애담에 나타난 빨치산에 대한 기억」, 『인문학논총』 제47집, 건국대 인문학연구원, 2009; 한정훈, 「한 여성 빨치산의 구술생애담을 통해서 본 정체성의 서사」, 『한국문화이론과 비평』 제50집, 2011 및 신동훈, 「역사경험담의 존재양상과 문학적 특성-6.25체험담을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24집, 2011.

3) 역사 경험담의 문학적 성격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신동훈, 앞의 논문(2011), 19~22면 참조.

는지를 대비적으로 조명해 보려 한다. 남성과 여성을 대립시키면서 논의를 풀어가려는 것은 현지조사를 통해 이야기를 수집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가볍게 지나칠 수 없는 편차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여성과 남성은 전쟁에 대처하는 방식에서, 그리고 전쟁을 기억하고 의미화하는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차이를 보이고 있거니와, 그 편차는 역사 속에서 남성과 여성이 살아온 방식의 차이를 확인시켜 주는 한편으로, 그들이 근본적으로 인간과 삶을 어떻게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남성과 여성의 삶과 의식 사이에 보이지 않는 깊은 분단이 있다는 입장이거니와, 그 분단은 오늘날까지도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시각이다. 그 분단을 들여다보면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하는 것이 이 논의의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⁴⁾

이 글에서 논의 대상으로 삼을 기본 자료는 필자가 근간에 수집 정리한 한국전쟁 체험담 구술자료들이다. 자료를 합치면 50편 가량이 되는데,⁵⁾ 그 중 한국전쟁기 여성과 남성의 삶의 모습과 인식 태도를 잘 보여주는 열 편 안팎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료들은 모두 특수 경험자가 아닌 일반인이 구연한 것으로서, 평범한 보통사람들의 전쟁체험과 기억을 반영하고 있다. 한국전쟁 체험이 민족 전체에 걸친 광범위한 것이었고 화자에 따라 서로 수많은 이질적인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이 논문에서 대상으로 삼는 자료는 명백히 한정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남성과 여성의 전쟁기억의 전체적 양상을 드러낸다는 과업과는 방향을 달리한다. 그 한 단면을 의미 있게 드러내 보임으로써 역사적

4) 구술사 방면에서 이루어진 기존 연구 가운데 본 논문의 문제의식과 성격이 가장 가까운 것으로 이성숙의 논문을 들 수 있다(이성숙, 『한국전쟁에 대한 젠더별 기억과 망각』, 『여성과 역사』 제7집, 2007). 본 연구는 새로운 자료와 관점으로 그 논의를 보완하는 가운데 ‘서사의 분단’이라는 문제적 화두를 제기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5) 필자는 6.25 이야기를 포함한 역사경험담이 문학적 담화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현지조사 과정에서 그 자료들이 정리 보고될 수 있도록 해왔다. 양주지역을 대상으로 한 2002-2003년의 구비문학 공동조사에서 한국전쟁 체험담을 일부 포함시켰으며, 2004년에서 2006년까지 수행한 도심공원 이야기문화 현지조사 사업에서도 20여 편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수행한 시집살이 체험담 현지조사 과정에서도 한국전쟁과 관련한 경험담들을 일부 수집할 수 있었다. 자료의 목록과 성격에 대해서는 신동훈, 앞의 논문(2011), 10~17면 참조.

삶을 투시해 볼 수 있는 화두를 이끌어낸다고 하는 것이 이 글의 지향점이다.

2. 전쟁상황 속의 남과 여, 그 단면적 초상

김성연(가명, 여, 1927년생)은 서울 종로구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만난 화자로서, 필자가 연구책임을 맡았던 시집살이 이야기 현지조사 과정에서 특별히 긴 시간에 걸쳐 생애담을 펼쳐낸 분이다. 조사자들과는 2006년 무렵의 설화조사 과정으로부터 일정한 교류가 있던 차에 아래 면담 과정을 통해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던 살아온 사연을 자세하게 풀어놓았다.

1차 조사 : 2008년 9월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김정경·김예선 조사. 1시간 40분 구연.

2차 조사 : 2008년 10월 31일, 서울 종로구 한정식 집에서 김정경·김예선·김효실 조사. 2시간 38분 구연.

3차 조사 : 2009년 3월 19일, 서울 종로구 한정식 집에서 김정경·김경희 조사. 2시간 25분 구연.

세 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김성연은 결혼과 남편, 자식에 얽힌 사연 등 세상을 살아온 이야기를 소상하게 들려주었다. 그에게 있어 전쟁과 피난은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 아픔을 환기하는 ‘생애의 경함’이었다. 1차 조사에서 6.25 피난을 주요 화제로 삼아 긴 구연을 펼친 데 이어 2차 조사에서는 반이상의 시간을 전쟁체험 구연에 할애하였다.

김성연의 고향은 황해도 해주다. 일제강점기 시절 경찰 집안의 자식으로 서 대체로 유복한 날을 보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2년 고등과 과정을 수료했으나 학교 공부도 많이 한 쪽이다. 하지만 해방 직후 중매를 통해 한 남자와 결혼하면서 인생이 뒤틀리기 시작했다. 김성연의 남편은 주색과 도박에 빠진 건달이었다. 결혼 첫날밤에 만취한 술집 여자를 신방에 들여서

함께 잘 정도였다. 연이은 도박에 폭력까지 휘두르니 김성연의 결혼 생활은 고통의 연속이었다. 김성연은 친정에 머무르던 중 가족과 함께 월남하여 강화에서 살았는데, 남편이 따라 내려와 머물면서 주색과 노름으로 세월을 보냈다. 경찰에서 일하던 김성연의 오빠가 남편을 경찰에 취직시켰으나, 남편의 거친 습벽은 여전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김성연에게는 다섯 살 된 딸과 둘 무렵의 아들이 딸려 있었다. 둘 모두 제 몸으로 낳은 아이가 아니라 남편이 밖에서 낳아 와서 떠맡긴 자식들이었다. 오빠는 아이들을 내다버리려 했으나, 차마 그럴 수 없어서 한 아이는 업고 한 아이는 끌고서 피난길에 나섰다. 걷고 또 걸어서 남편의 근무지인 대전에 이른 뒤 경찰의 도움으로 차를 얻어 타고서 대구로 들어갔다고 한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홀로 피난길을 움직이는 일이 어떠했는가 하면 다음과 같았다.

그래갖군 해는 뉘엿뉘엿 지지, 기마대 병사들이 저거 말 타구 뛰어 돌아댁기는 거 그거백인 읍어. 그런데두 힘들어서 어떻게 갈 수는 없지. 그래서 내가 앉아갖구 애기는 안구 인제. 그랬드니 인제 우리 그 딸래미다려 옆에 앉아서,
“엄마 나 발이 부었어”

그래갖구 보니까 발잔등이 탕탕 부었어. 그래서

“어떡허냐, 어이구 그래갖구, 하루종일 이 어린 게 걸어왔으니까 다리가 이롱게 뵈네”

인제 그러믄서나 앉아서 그롱게 다리를 맨지구 있는데. 요롱게 바리다 보니까 풀숲에 병이 떨어졌드라구. 그래서 내가 얼롱 이롱게 병을 줏었다구. 줏어갖구 우리, 그 내가

“아프지? 그르니까 엄마두 아프니까, 가지 모두 아프니까 우리 저거 어떡허니? 이거 약이야. 먹고 죽는 약인데 너캉 나캉 이거 먹구 죽자” 그르니까

“애기는 어떡허구?” 그르니까

“애기는 너캉 나캉 죽으믄 그냥 죽어 여그서.”

“그 불쌍해.” 그래.

“같이 못 죽어 약이 죽어서. 우리 둘이만 먹구 죽자.” 그러니까

“엄마 나 아프다구 안허구 잘 걸어가께, 우리 애기 죽이지 말구 그냥 우리 같이 살자” 그러드라구.⁶⁾

저녁 무렵에 두 아이를 챙겨서 깃들 곳을 찾아야 하는 어머니와 발이 통통 부운 채로 하염없이 걸어야 하는 다섯 살 어린아이라니,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오는 모습이다. 오죽하면 약을 먹고 죽자는 말을 했을까만, 그 말을 듣는 어린아이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측량하기 어렵다. 저 아이가 어미의 친자식이 아니라 밖에서 낳아온 자식임을 생각하면 이 장면에 얽힌 갈등과 아픔이 더욱 무겁게 다가온다. 딸아이가 힘을 내게 하려고 꾸며낸 말이라 하지만, 저 어미의 마음속에는 자식을 떼어놓고 싶은 마음이나 죽고 싶은 마음이 정말로 담겨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피난처에서 머물면서 어떻게든 남편을 만날 기회를 엿보던 김성연은 마침내 남편과 상봉하게 된다. 그런데 제 자식을 이끌고 사지를 헤쳐온 아내한테 그 남편이 한 말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래갖구 대구에서 자매실방을 은어갓구, 사람들이 나가서 은어갓구는 칠성동에서 자매실방에 가서 일주일인가 있는데 충남 경찰관들이 인제 뿔뿔이다 하나씩 걸어서 대구로 들어오래는 빠라가, 빠라가 붙구선 막 거식허니 뿌리고 그러드라구. 집어보니 그렇드라구. 그래서 그 날부텀 에 충남 경찰 거식허니 학교, 그 전에는 충남 경찰관들이 모이래구 해는 데니까 거기 가서 일주일 지켰나봐, 내가. 만날려고, 남편을.

그랬더니 거기서 만났더니 (길게 강조하며) 날더러- 죽지 았구 거기꺼징 왔대구 욱을, 욱을. (잠시 말을 잊지 못하더니) 아우 저 인간이 살아서 또 여기꺼징 왔대구……. 그냥. 내가 뭐랬냐구, 거식허니 하면. 내가 올 힘이 있을 때꺼정은 오는 거지, 왜 (목소리를 높이며) 괜히 왜 죽어? 그 맞닿았을 때는 그 사람들(인민군) 손에 죽지 말구 인제 내가 그냥 자살이라두 하라 했지만, 만나지 았구선 피난 혈 때는 나두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아유-)

6) 2008. 10. 31(2차조사), 서울 종로구 안국역 근처 한정식 집(충청도집)에서 김성연 구연.

그랬더니 그기 바로 앞애가 여관이드라구. 그래 낮엔 여관두 못했거든. 피난민들이나 뭐 막 들어오니까. 그래 그 집더러 방 하나 주라니까 행길 앞 방을 주드라구.

그름 자기가 올라가마는 얘기를 헐 테니까 요기매, 이 여관에 가 있다구 얘기를 헐 테니까 요기서 기다리라구 형제, 쫄병이니까 인제 뭐이라두 하나라두 그른 심부름 해주만 좀 또 그리하잖아 그래서. 앓구 있으니까 이롭게 처량하게 바깥 내다보구 앓구 있으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어뎜 트럭을 타구서 나오드니 고기서 딱 스편디만 훌딱 내려갓구 가는 게. 인자 그래 막- 쫓아가서 이름을 부르니깐 보드니

“아 저거 죽지않구 여기꺼정 왔네.” 그러드라구.

우리 할아버지 그래, 날더러 저거 죽지 않구 여기까지 왔대.⁸⁾

그래서 우리들이 인제 자는데. 아 뭘 잊어뿌렸다구 그냥 그 권여자보구 뭐라구 허구서나 들오는데 그 우리 얘기 아버지 목소리드라구. 그래서 내가 뎜 벼락으루 자는 척하구 이롭게 돌아 드뤄뉘 있으니까 불도 안키구 후라시루다가 그 옷 이래 뭐 넣어뒀던 데 거길 뒤져보다

“어, 여기 있네”

그르구 들구선 나가니까는 우리 강림이가 가만 놔두래는데도 놔두지 않군

“아자씨!” 그랬다구. 그러니깐

“은 이것들 여겼네. 고놈으 새끼들이,” 그 경찰관들을 욕을 허므, “그놈으 새끼들이 여기 데려다 쫓구만”

그러믄서나 민망하니깐 그 사람들더러 그 저카드라.

“우리 식군데 여기서 잘 자게 해 주라”구 그러구는 나가드라.

그게 인간이요? 일 년 만에 사람을 보는데, 육이오 그 전시하에 그르구 뎜 기다가 식구를 보는데 그 때려주구는, 끌어다가 거그다 놓구는 아무 데서나 가라구 거기다.

“너 느이 오빠 있잖아, 느이 오빠 찾아가믄 되잖아.” 날더러, “느이 오빠 있잖아, 느이 오빠네루 내려가지 왜 이리 오냐?”구.⁹⁾

7) 2008. 9. 19(1차조사), 서울 종로구 경운동 서울노인복지센터 1층에서 김성연 구연.

8) 2008. 10. 31(2차조사), 서울 종로구 안국역 근처 한정식 집(충청도집)에서 김성연 구연.

김성연은 두 차례의 면담에서 피난지에서 남편과 대면한 상황을 세 번이나 이야기했다. 그 상황이 그의 전쟁기억의 중핵을 이룬다는 뜻이다. 상황에 대한 구체적 서술은 이야기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으나, 핵심 사항은 분명하다. 남편이 1년 만에 전쟁통에서 만난 처자식을 보고 반가워하거나 동정하기는커녕 못 볼 꼴을 본 것처럼 ‘저게 죽지 않고 여길 왜 왔나’ 하고 내뱉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무심코 내뱉는 말에 본심이 깃드는 법이니, 저 남자에게 처자식이란 옆에 있어 봐야 하등 좋을 것이 없는 귀찮은 짐일 따름이었다.

제 자식도 아닌 어린 자식을 짊어지고서 죽도록 고생하며 찾아가 만난 남편한테서 저 말을 들었을 때 아내의 심정은 어떠한 것이었을까? 김성연은 이 대목을 구술하면서 목소리를 떨거나 높이기도 하고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그 일은 이미 수십 년이 지나 남편이 세상을 떠난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다. 저 장면은 남편에 대한 한 가닥 기대마저 무너뜨리는, 둘을 남남으로 만드는 ‘분리’의 장면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전쟁이라는 극한상황에서 확인한 건널 수 없는 심연이다. 뒷날 김성연은 아이들이 큰 뒤 남편을 버리고 집을 나오게 되거니와, 실상 위의 저 순간에 결정적으로 심리적 절연이 이루어졌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언제라도 저 일을 생각하면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면서 남편이 완전한 남으로 느껴지게 되었으리라는 것이다.

김성연이 경험한 남자들의 냉혹한 모습은 남편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가 1.4 후퇴 때 찾아간 오빠는 제 동생의 친자식이 아닌 두 아이를 다음과 같이 대했다고 한다.

www.kci.go.kr

그래서 강경 가서 그르구 사는데 1.4가 또 나더라구 1.4후퇴라는 게 또 있었어, 쫓국놈들이 내리 밀었잖아. 그게 1.4후퇴가 나갓구서나. 피난을 가는데 피난을 가야되는데 어둡해 가냐. 내가 그냥 돈이 있냐, 빚 있어.

그래는데 저 문관이라구, 혼병대에 문관이래는 게 있어. 그냥 사복 하구 차림으루다가 나가서 뭐 정보 허는 사람, 그 사람이 데릴러 왔드라구, 오빠네서 데릴러오랜다구. 그 사람이 데릴러 와서 광주, 전라도 광주로 내리간 거야 오빠네루.

그 인제 우리 오빠가

“아이들 내불구 오지 왜 데리구 왔냐?”는.

오빠마다 그냥 애들 버리구 땡기지 끌구 땡긴다구 그르니 얼마나 더 불쌍해.

우리 큰오빠는 조반 먹을 적에 그냥 친정에 가서 아이 둘 아이 데리구 사니까는 불쌍, 저 거스그니 막 어려운 시절에 와서 애들꺼정 데리구 있다구.

나 뵈에서 밥갓구 들으가기 전에 우리 딸래미 저 구석에다 갖다 세워놔. 그 구석에 서 있어. 우리 오빠가 그것을 했다구. 구석에다 세워놓구 지들은 밥 먹는 거야. 아후 그냥 더 불쌍하구 더 가슴 아프구. 찢어지게 아프구. [목이 메어 눈물을 흘림]

내가 인제 물이든지 밥을 뜨구 들으가믄 구석에서

“엄마” 그래.

“이리 와.” 내가, “이리와, 이리.” 그루구.

인제 우리 오라버니댁이 막 야단을 하믄서

“새끼 버리구설랑 자기 혼자 살라구 친정에 오갔냐”구. “그러는 데가 어딴냐”구 야단을 허구.

그래두 우리 오빠 자꾸 그러대. 내가 그릉게 해서 길러냈는데. [목이 메어 눈물을 흘림]¹⁰⁾

www.kci.go.kr

10) 앞과 같음.

아이들이 듣는 앞에서 그 애들을 버리고 오지 무엇 하러 데려왔느냐고 말하는 사람. 그것은 단순한 허언이 아니라 ‘본심’이었으니 아이들을 세워 놓고서 자기끼리 밥을 먹는 행위를 통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쟁중의 힘든 시절이었고 여동생이 짐처럼 떠안은 아이에 대한 화증을 이해할 만도 하지만, 철없는 어린아이에게 차마 저렇게 할 일은 아니었다. 김성연은 그때를 생각하며 서러움에 목메어 흐느끼고 있거니와, 저 장면 또한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장벽이 놓이는 분리의 순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김성연은 저러한 오빠의 모습이 하도 원망스러워서 그 뒤로 오빠 집에서 무슨 일을 해도 안 갔다고 한다. 이렇게 마음은 닫히고 상처만 남게 되었던 것이었다.

김성연의 두 자식은 주변 사람으로부터, 특히 남편한테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신음하는 엄마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우리 큰딸은 날더라 쪼끔 크니까 중국놈한테라두 시집가래. 그래서 우리들 맥여 살려야지 어떡허냐구. 남은 다 잘 가는데 왜 중국사람한테라두 시집을 가서 맥여 살리지 그런다구. 얼마나 싸납게 컸는지 지랄을 하고 커갖고는. 그렇게 잘 하드니만 어딜루 갔어.

세상에 미인으루 생겨두 그렇게 미인으루 생길 수가 읍어. 얼마나 이쁘게 생겼는지 몰라. 사람들이 보든 놀래. 하야 그러구. 즈 애비만 들오르는 잘 살다가도, 우리 서이 벌어먹고 잘 살다가도 애비가 들오르는 만날 때리구 부시구 싸우니까는 우리 큰딸은 날더라 중국사람한테라도 시집을 가래. 갈 데가 읍으면 중국사람한테라두 가서 살라구 그러구.

우리 아들애는

“저 사람 내쫓구 우리끼리 살자, 엄마 우리끼리 살자, 엄마 우리끼리 살자”

“저거이 나가야 우리끼리 살잖아.” 내가 그러든

“아유, 저거 내쫓구 우리끼리 살자, 우리끼리 살자”

끓어두 우리끼리만 살뜨는 좋대.¹¹⁾

11) 앞과 같음.

엄마한테 아버지를 버리라고 말하는 저 아이들이 누군가 하면 제 몸으로 낳은 자식이 아니라 제 남편이 데려와서 떠안겨놓은 자식들이었다. 김성연은 결국 저 자식들에 대해서도 마음이 닫히면서 분리의 길을 걷게 된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와중에 큰딸을 학교에 안 보내고서 고된 일을 감당하도록 하다 보니 딸의 마음이 꺾꽂해지고 어미와 사이가 멀어져 갔다. 김성연은 그 뒤 제 몸으로 아들과 딸을 더 낳았으나 그들도 삶을 기댈 만한 버팀목이 되어주지 못했다. 오래 전부터 이미 남편에게서 마음이 떠나 있었던 김성연은 나이 마흔을 넘긴 어느 날 남편과 자식들을 놔둔 채 무작정 집을 나와서 혼자만의 삶을 선택하게 된다. 주변에서 집으로 다시 들어가라는 권유도 받았지만, 좋은 기억이라고는 하나도 남기지 않은 남편과의 재결합은 상상하기조차 싫었다. 20년쯤 뒤에 남편이 정식으로 이혼절차를 밟아 주겠다고 했을 때 너무나 기뻐서 신속히 일을 처리했다고 한다. 그 뒤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슬프다는 마음을 조금도 느끼지 않았다 하니 둘 사이의 분단은 그리도 골이 깊은 것이었다.

김성연은 현재 틈나는 대로 노인복지센터에 나와 역사와 컴퓨터도 배우고 미술작업을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남자 노인네가 엉뚱한 마음을 비치거나 하면 바로 따귀를 치는 등 냉정하게 자른다고 한다. 그에게 있어 세상의 모든 남자란 포용하기 어려운 존재이거나, 지난 시절의 쓰라린 경험이 남긴 슬픈 유산이다. 하지만 남편과는 달리 자식에 대해서는 회한이 무척 깊다고 한다. 자식들을 생각하면, 특히 제대로 보살피지 않고 고된 일을 시켜 원망을 낳았던 큰딸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젊은 시절 남자에 의해 가슴에 심어진 '분리의 서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저 여인은 이렇게 깊은 트라우마에 신음하면서 노년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중이다. 그가 마음속 상처와 한을 끝내 풀어 내지 못한 채 눈을 감을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진다.

이상 살펴본 김성연의 사례가 전쟁상황 속 남성과 여성의 모습을 대변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세상 모든 남편이나 오라비가 저렇게 모질도록 냉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저 형상이 전쟁이라는 극한상황 속에서 노출된 남성과 여성 삶의 단면적·이면적 초상이라고 하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여성이니까 저러할 수 있었고, 남성이니까 저러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저것은 꾸며낸 일이 아니라 밑바닥의 한 보통 여성이 실제로 겪었던 일이다.

3. 여성이 겪은 전쟁, 남성이 겪은 전쟁

김성연 화자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여성이 겪은 전쟁의 일단을 본다. 어떤 전쟁인가 하면 전장에 나가 총을 드는 대신 가족을 잃어온 채로 무겁게 움직여온 생활 속의 전쟁이다. 당장 잘 곳을 찾고 먹을 것을 찾으며 나날의 삶을 지켜내야 했던 그 전쟁은 남성들의 전쟁 못지않게 버거운 것이었다. 특히 김성연의 경우처럼 물리적인 측면 외에 심리적으로 고립된 처지에 있어 그 전쟁은 더욱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가족을 잃어온 채로 전쟁터를 걸었다’는 것. 이는 한국전쟁 체험을 생생한 이야기로 펼쳐낸 여러 여성 화자들이 공통적으로 전해준 핵심적인 전쟁의 형상이었다. 전쟁 당시 아내이거나 어머니였던 많은 여성들이 그와 같은 맥락에서 전쟁에 얽힌 사연을 들려주었다.

먼저 충남 논산 출신으로 공주시 교동에서 전쟁체험담을 전해준 이임선 화자(가명, 1929년생)의 사례를 본다. 이임선은 일제에서 해방되던 해에 열일곱 나이로 조치원에 내려와 결혼한 뒤 서울에서 살다가 두 번의 피난을 거쳐 공주에 정착한 여성이다. 남편이 타지로 일을 하러 간 상태에서 피난 길에 나섰는데, 돌 지난 아기를 업고 무거운 짐까지 짊어지고서 옮기는 발걸음이 한없이 무겁고 힘들었다고 한다.

애기가 아주 어린 건 아닌데 세 살인데 세 살이라도 아주 어린 거여. 12월 달에 낳아서. 올 지나고 내년이 세 살이잖아. 그렇게 걷, 확실히 걷지도 못하고 업기도 힘들고. 그걸 업고 오는데, 남들은 그냥 애기를 업고 그것도 대간하다고 남자가 이만한 보따리 짊어지고 여기다 얹어놓고 오는 거. 그럼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는 거. [청중 : 웃음] 애기 업었지, 또 보따리 었지. 덮기는 얼마

나 더워, 그 육이오 때. 그 더운데. 그렇게 포대기는 못 들르고 떠만. 떠 아나 몰라? 이렇게 길은 떠로다 이렇게 (웃으며) 쫓매고.

오다가는 이 공주 사는 사람이 땃 사람이 있더라구 그 동네에. 그래서 같이 와야지. 길을 몰르잖아. 걸어서 오는다. 걸어서 안 대너봤으니까. 그 사람들을 놓치면 안되는데 그냥 죽었다고 얘기를 엮고 쫓으면 그 사람들은 기운이 좋으니까 저만치 보일 만치 안 보일 만치 가요. 그래가주 그늘옐, 나무, 느티나무 같은 게 있으면 쉬어 가는 거 거기서. 그래 그 사람들을 안 놓쳐야 내가 공주를 올텐디 놓치지 않을려고 죽겠다고 쫓아가며는, 쫓아가며는 그 사람들은 시컷 쉬고 가지는 거. “갑시다.” 하고 일어나요.

(중략)

한참 오고나니께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여. 비가와도 와도 어지간이 오는 게 아니여. 그러니 우산이 있어 뭐 집 있으니 들어가길 해. 산길로, 산길로 오는다 아주 다 젖은 거야. 다 젖어 얘기도 다 젖고. 그래도 어린 애는 안 젖게 어떻게 갑바조각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다 쓰고 갔어요. 하나도 안 젖었어, 얘기는. 그래 오는데 하루 종일 걸어서 오는다 소변도 어디 가서 볼 디도 없지만 그냥 옷이 다 (웃으며) 젖었응게 가면서 서서 [청중 웃음] 그냥 소변보는 거야 그냥.¹²⁾

지금은 지난일이 된 터라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젊은 여인의 몸으로 아기와 짐을 함께 간수하면서 온몸이 땀범벅이 된 채로 황급히 발걸음을 옮기는 일이란 감당하기 어려운 크나큰 고역이었을 것이다. 빗속에서 길을 걸으며 소변을 볼 적에는 모름지기 땀과 함께 눈물까지도 섞여서 흘러내렸을 것이다. 도량을 건너다가 고무신을 흘려보내고서 맨발로 길을 걸어서 목적지에 도착한 순간 “그냥 거기 었어져서 그냥 막 울었다”고 하거니와, 그 마음자리가 생생하다. 서울에서 공주에 이르는 그 피난길은 육체적인 고통 이상으로 남편도 없고 다른 가족도 없이 혼자라고 하는 데 따른 심리적 고통이 컸을 것이다. 그 막막함과 절망감은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생생하게 남아서 이렇게 이야기로 펼쳐지고 있는 중이다.

12) 2008년 11월 29일, 충남 공주시 교동에서 이임선 구연. 박경열·나주연·김아름 조사.

다음은 강원도 강릉 초당 출신으로 강릉 현지에서 전쟁 체험을 포함한 생애담을 구연한 지순녀(가명, 1928년생)의 사례다. 지순녀는 학교 공부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열여덟에 성씨 좋은 집안의 남자를 골라 시집을 갔는데, 고된 시집살이의 시작이었다. 시댁 식구들은 첩의 자식이었던 남편을 머슴처럼 부렸다고 한다. 시어머니는 일을 하지 않고 만동서가 집안일을 챙겼는데 만동서가 죽은 뒤 수많은 집안일이 다 자기한테로 넘어왔다. 전쟁이 터진 뒤 돌이 갓 지난 아이를 업고서 겨울에 피난길에 나섰는데, 대관령 눈길에 막혀 멀리 가지 못하고 친정으로 걸음을 돌렸다. 홀로 아기를 업고서 친정집에 도착하자 설움에 그만 눈물이 쏟아졌다. 그런데 그때 제 모습을 본 친정아버지의 한 마디 말이 가슴을 찔렀다.

그래 문을 열고 이래 정지를 해서 문을 앞을 걸고 정지문을 해서 부엌문을 열고 구들에 구들에 이불을 이렇게 덮어놓고, 아버지가 계시는게 숨소리만 이렇게 혈건혈건 하고, 누구냐고 하니까. 내다 하니 왜 왔느냐고 하고, 피난가다 못가고 왔다 그러니까. 고개를 이리 들썩 하면서 나를 내치시더라구.

“왜서 남의 손을 데리고 우리 집으로 왔느냐”고.

“따라가지. 죽더라도 따라가지. 왜서 남의 손을 데리고 이리로 왔느냐”고.

“동생이라 오라비와 피난 다가고, 우리 두 늙은이만 죽더라도 여기 있을라고 떨어졌는데. 왜 왔냐”고. 이러더라구.¹³⁾

전쟁이 터진 상황에서 어린애를 업고서 의지처를 찾아 힘들게 친정에 찾아든 딸에게 아버지가 한 말은 “왜 남의 손을 데리고 왔느냐”는 타박이었다. 옆에 챙겨주고 지켜줄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친정조차 마음 편히 깃들 곳이 되지 못함을 깨달았을 때의 고립감과 서러움은 어떠한 것이었는지. 저 장면은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이 땅에 ‘여성’으로 산다는 일의 설움에 단적으로 직면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떻든 지순녀는 친정집에 머물러 지내게 되었다. 그런데 계속되는 공습

13) 2008년 12월 8일,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 노인회관에서 지순녀 구연. 최원오·이원영 조사.

소리에 놀랐는지 아이가 경기를 했다. 약을 사러 가려 해도 인민군들한테 붙잡힐까봐 맘대로 나갈 수가 없었다. 결국 거기서 아들을 잃고서 솔밭에 묻고 말았다. 소식을 들은 시아버지가 찾아와서 자기를 데려갔는데, 수건을 씌우고 할머니 모양으로 만들어서 데리고 간 뒤 인민군의 눈을 피해 숨어 살게 했다고 한다. 남편이 부재한 상태에서 아이를 데리고 부대끼면서 친정과 시택 사이에서 갖은 마음고생을 하며 지내온 한 많은 날들이었다. 감당할 일은 많되 마음 편히 깃들 곳은 없었던, 전쟁이라서 더욱 힘들고 서럽기만 했던 여성의 형상이다.

다음은 경북 영주 출신으로 충남 공주시 교동에서 피난생활담을 구연한 김연자(가명, 1926년생)의 사례. 김연자는 열여섯의 나이에 남편을 만나 일제 치하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했다. 결혼한 지 삼년 만에 남편이 일본에 군인으로 갔다가 해방되고 나서 돌아왔다.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당시 남편은 경찰에 있었다. 피난을 가야 할텐데 시어머니를 챙겨야 하고 이웃집에서 맡긴 아이까지 딸려 있어 움직이기가 어려웠다. 수도깡(?)이란 곳으로 피난하여 갯국집에 취직해서 일을 했는데, 여자를 몹시나 밝히는 미군들을 피하느라 신경을 써야 했다. 일부러 얼굴에 황칠을 해서 흉하게 보이기도 하고, 장애인 흉내를 그럴듯하게 내어서 미군들을 물러나게 하기도 했다. 적군들이 물러난 뒤 남편이 자기를 데리러 왔으나, 김연자는 남편을 따라갈 마음이 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 그래 일하다가 해방이 됐어. 인제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이렇게 해방이 됐는데 인제 그땐 신랑이 와가지고 뭐 어찌어찌 하대. 내가 배짱을 부렸어. 아, 식당에 댕겨보이 돈도 많이 주지, 아, 시어마이하고 둘이 살면 되겠더라고. 가 신랑이사, 내비려빠리고 뭐 그땐 뭐 남자 생각도 없고 에이고, 막 그때는

“나 당신하고 안 살어. 당신 어머니는 안 내빌고 내가 데리고 살 거이께 당신은 당신대로 경찰서 가서 살으라”고.

“나 여기서 돈 많이 주이께 돈도 뭐 저금하고 난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시어마이하고 방 얻어가지고 이렇게 살면 아, 뭐, 뭐 나 혼자 있는 거보다 시어머

이하고 있으니까 든든하고 당신 어머니는 내가 말을 테이께 당신은 가라.”

이래이께 눈이 뜨그래가지고 그때는 나를 안 놓칠라 그러더라고.

“일 없다”고.

막 저녁에도 오면 막 소릴 지르고 막 내가 막 지랄을 막 하고 이래이께 한
몇 달을 그랬는가봐.¹⁴⁾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시어머니와 둘이 지내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하고 자유로웠다는 것이다. 밖으로 나돌며 생활하는 남편은 없는 존재나 마찬가지로 지었다는 뜻이내 생활상의 분리가 심리적 분리로까지 이어진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시어머니 또한 아들보다 며느리 김연자를 더 믿고 의지했다 하니, 이 가족을 짊어진 것은 남편이 아닌 아내였다고 할 만하다. 그 뒤 ‘겨울난리’(1.4후퇴)가 났을 때 시어머니를 챙겨서 굴속의 피난생활을 영위해 나간 것도 단연 그녀의 몫이었다. 남편이 가족을 벗어나 혼자 움직이는 동안 저 아내는 이렇게 이리 부딪치고 저리 부딪치며 전쟁하의 한 가정을 떠맡았던 것이었다.

이상 여러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하나의 두드러진 특징은 남편의 부재이다. 남편이 바깥에서 움직이는 상황에서 전쟁하의 지난한 ‘생활’을 온몸으로 감당해야 했던 것이 이 땅의 여성들이었다. 그 생활은 제 혼자 몸만 수습하면 되는 것이 아니었으니, 자식을 돌보아야 했고 시댁 식구들을 챙겨야 했다. 그것이 한 집안의 안식구로서 여성이 담당해야 했던 전쟁의 전형적 단면이었다고 할 수 있다. 위험하기로는 총탄이 오가는 전장보다 덜할지 모르나 버겁기로는 그에 못지않은 큰 전쟁이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여성의 전쟁 기억에 있어 흔히 집 떠난 부재자로 등장하고 있는 남성들은 그 당시 어디서 무얼 하고 있었던 것일까. 필자가 확보하고 있는 20편 가량의 남성 구연 전쟁체험담에 있어 남성들이 전쟁중에 집안에 머물면서 가족을 챙겼다고 하는 사연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들은 전장에 있거나, 피신중에 있거나, 또는 밖에서 일을 보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

14) 2008년 11월 29일, 충남 공주시 교동에서 김연자 구연. 박경열·나주연·김아름 조사.

한다. 그 이야기의 큰 줄기는 참전담과 처세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직접 전쟁터에 나서서 목숨을 걸고 전투에 임했던 경험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전투에 임한다는 것은 생사가 엇갈리는 극도의 긴장 상황을 헤치고 나아가는 일로서 강렬한 인상 속에 많은 잊지 못할 많은 기억을 남긴다. 참전 경험을 지닌 남성들은 전쟁체험담을 특유의 종목으로 삼아 적극적인 이야기 구연에 나서곤 하는바, 과연 그럴 만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전쟁터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 생사가 교차하던 그 극한상황을 돌아보는 것은 언제라도 가슴을 움직이게 하는 일일 것이다.

사례 하나. 청원군 출신으로서 청주 중앙공원에서 한국전쟁 참전담을 구연한 서병하 화자(1923년생).¹⁵⁾ 몇 편의 설화 구연에 이어 자청하여 자신의 전쟁체험담 구연에 나선 분이다. 서병하는 훈련소를 거쳐 6사단 7연대에 배치된 후 이리저리 전쟁터를 거치면서 사선을 넘나든 이른바 ‘참전 용사’였다. 그가 소속된 연대는 사람이 많이 죽기로 유명했던 곳인데, 명이 길었는지 요행히 살아남아 훈장까지 받았다고 한다. 총탄이 빗발치는 전쟁터를 누비는 것은 지척의 앞날을 내다볼 수 없는 긴장된 상황의 연속이었다.

그래 저녁을 먹으면서,

“내일 너하고 나하고 또 밥먹을라나 모르겠다.” 이거여.

매일 죽으니께.

“글쎄 글쎄 살면 다행이지.”

아침에 보면,

“너 안 죽었니?”

“그래 너도 안 죽었구나.” (웃음)

이라고 인저 맨날 인사가 그거여. 그러더니 그때는 다치면 육군 병원을 갔어.

“어떻게 해야 육군병원 가니?”

인사가 그거고.

15) 2006년 12월 20일, 청주 중앙공원에서 김종군·김경섭·심우장·유효철 조사. 서병하가 구연한 체험담은 신동훈 외, 『도시전승 설화자료 집성』 6, 민속원, 2009, 135~144면에 ‘6.25에 참전하여 살아온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어떻게 해야 육군 병원 가니, 가니.”

그라. 그라고 사는데, (손으로 다리쪽을 가리키며) 칼로 다리를 푹 찌르고 육군 병원을 좀 가볼라고, 대검으로 찢러볼 게 찢르는데 아파서 못 찢르겠어 제 살은. (웃음) 그래 콩 튀듯 해도 거기서 살아 나왔어 내가. 16)

언제 목숨이 달아날지 모르는 극한의 상황에서 죽음을 모면하는 확실한 길이 부상을 당하여 병원으로 실려가는 일이었다 하니 아이러니한 일이다. 대검으로 자기 다리를 찢르는 모습까지 상상해 보았다 하니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현실적인 것이었는지 실감하게 된다. 어땠든 서병하는 그런 전방의 생활 속에서 무사히 살아 돌아와 자랑스레 그 시절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그가 이야기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 ‘전장을 누비며 빗발치는 총탄 속을 헤쳐 나왔다’는 것은 한국전쟁 당시 남성이 치른 전쟁의 한 전형을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례 들. 경북 구미 출신으로 대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한국전 참전담을 구연한 박태문 화자(1927년생).¹⁷⁾ 박태문은 조사자들이 설화에 관심이 많은 것을 알면서도 6.25 체험담을 해도 되겠냐고 양해를 구한 뒤 약 40분에 걸쳐 열띤 태도로 참전담을 구연하였다. 전쟁이 발발한 지 채 한 달이 안 되어 입대했는데, 대동청년단에 있던 중 군대에 가보고 싶어서 손을 들고 자원입대 한 것이라 한다. 훈련을 거친 뒤 부대에 배치되어 전국의 전쟁터를 누비며 사선을 넘나들었다. 아홉 명으로 구성된 분대가 식사를 하던 중 수류탄이 터져 동료 여섯 명이 즉사한 적도 있으며, 절에 숨은 적을 소탕하기 위해 절에 불을 지른 적도 있다. 중공군과 싸우다가 포위되어 나흘 동안 개구리 같은 것을 잡아먹으며 버티기도 했다 한다. 다음은 중공군을 공격하다 부상을 당한 상황을 진술한 내용이다.

16) 앞의 책, 139면.

17) 2006년 7월 23일, 대구 노인종합복지관 야외 테크에서 신동훈·조현설·김종균 외 조사. 박태문이 구연한 전쟁 체험담은 신동훈 외, 『도시전승 설화자료 집성』 9, 민속원, 2009, 183~198면에 ‘6.25 참전기’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고때 인제 저녁 시간인데. 저녁에 뭐 어둡은, 어둡살인 안 끼이고 저녁시간
인데 저- 여서 보면은 한- 백매다 전방에 보이까네 떼눔들이 말이지 막 털모
자 쓰고 밥 받아 노나 먹구 막 이래요. 그 내가 있다가,

“야야, 우리 말이지 여-서 말이지 씨발 저거 보고 막- 마마 함 싸 보자. 싸
보고 마, 뭐 그래야 우리가 다부도를 내려가지 싸보자.”

“그래자, 마.”

거가 나무가 이제 참나무가 말이지 가지가 쭉- 벌어져있는데. 뭐 총 이래문
턱- 없어 놓고 조준하이 참 그그 조준이 아주 잘 맞는 기라 고마. 그러구 마-
에프완(MI) 하나에 팔방씩 말이지 광광 싸부르고 또 새로이 탄발에 재가지구
두 발을 쏘니까 땡기니까네 저 늑도 우릴 알아가지고 이제 바격포를 쏘단 말
이야. 바격포를 쏘가지고 바격포를 인자- 대거리 직통으로 맞으면 그건 대번
박살 나부지마는 저래 숲이 딱- 때리는데 나무에 떨어지면 말이지 바격포가
말이지 마- 나무관이랑 같이 와르르르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내 뒷 궁덩이에 여-가 지금두 흥터있네, 여가 딱 때려뿌는데 보
이, 확인해 보이 마 피가 쭈르르 나더라. 에이고 뭐 수건 빼가주 마- 질끈 매가
주구 마 그 저, 중대본부 쫓아왔는 기라. 와가지구,

“부상당했다.”그카이,

“그래 그 저저 중공군 그거 적이 어딴드노?” 그카이,

“여 정말, 여서부터머는 약, 한- 이백매다 밖에 그거 있드라.”

그 말이야. 진치구 있드라 보고하고.18)

적을 발견하고 선제공격을 했다가 바격포 반격을 받아 엉덩이에 부상을
입은 장면이 뚜렷한 기억으로 남아서 생생하게 재현되고 있다. 생각하면 위
기일발의 상황이었으나, 저 부상은 박태문을 최전방 전선에서 물러나게 하
는 계기가 되어주었다. 박태문은 부상병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뒤 일중
의 피병을 내어 몸의 이상을 주장하여 육군병원에 계속 머무를 수 있었다.
박태문의 체험담은 목숨을 건 교전담과 살아남기 위한 처세담을 아우른 것
으로서, 전쟁터에서 생사의 고비를 이리저리 헤쳐나온 과정에 서술의 초점

18) 앞의 책, 192면.

이 놓여 있다. 서병하의 경우와 통하는 특징이다.

한국전쟁 때에 목숨을 건 치열한 싸움과 전방의 교전지역에서만 펼쳐졌던 것이 아니다. 후방에서도 인공 치하와 국군(유엔군) 치하를 거치며 좌우의 이념을 둘러싼 갈등 속에 많은 사람이 죽어갔다. 이념 갈등의 문제는 특히 남성들이 감당해야 할 과제였으니, 자연스럽게 남성들의 체험담 속에 좌우의 이념대립 사이에서의 처신과 관련한 이야기가 주요 화두가 된다.

먼저 강원도 횡성 출신으로 서울 종로구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펼쳐진 ‘자유발언대’에서 발언을 신청하여 25분에 걸쳐 한국전쟁 체험담을 구연한 탁양선 화자(1922년생)의 사례.¹⁹⁾ 그의 체험담의 기본 화두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전쟁이라고 하는 긴장과 위협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움직여 살아남았는가 하는 문제였다. 탁양선은 전쟁 당시 횡성 법전면에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인민군이 밀어닥치며 세상이 바뀌었다. 그는 그 상황에서 마을 선전부장 역할을 맡았으나 걸만 빨강고 속은 하얀 가짜 빨갱이었다고 한다. 그는 인민군이 의용군을 모집하여 붙잡혀갈 상황이 되자 몸을 피하여 친지 댁을 거쳐 산에 숨어 지냈다. 그러던 중 인민군이 후퇴하는 걸 보고 인민군 몇 명을 붙잡아 가두었다가 경찰에 넘겼다. 그 뒤 국군이 들어온 후 부역자로 취급되지 않고 환영을 받았다고 한다.

전쟁이라는 긴장과 위기의 상황에서 사태가 돌아가는 정황을 잘 파악하여 현명하고 교묘하게 처신함으로써 그 상황을 무난히 잘 헤쳐 나왔다는 것이 탁양선이 구연한 체험담의 기본 줄기를 이룬다. 그에게 있어 위협을 이리저리 피하거나 감당해 온 자신의 모습은 전쟁에 참여한 역전의 용사 못지않게 자랑스러웠던 일이었던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당시 상황을 펼쳐놓았다. ‘이념의 틈바구니에서 줄타기를 잘 하여 살아남았다’는 것. 그가 보여준 전쟁 속 남성의 단면적 형상이다.

끝으로 전북 정읍 출신으로 서울 종로구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한국전쟁 시기 생활담을 들려준 조판구 화자(1918년생)의 사례를 본다.²⁰⁾ 조판구

19) 2006년 6월 22일, 서울 종로구 경운동 서울노인복지센터 강당에서 신동훈·김예선 외 조사. 탁양선 화자가 구연한 체험담은 신동훈 외, 『도시전승 설화자료 집성』 3, 민속원, 2009, 404~414면에 ‘한국전쟁 때 겪은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20) 2006년 1월 26일, 서울 종로구 경운동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김종균·김경섭·심우장 외

는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과 노인복지센터의 소문난 이야기꾼으로서 조사자들에게 많은 설화를 구연하였는데, 고추장사를 하며 살아온 사연을 비롯한 경험담도 길고 재미있게 들려주었다. 그는 자신이 한국전쟁 시절 ‘이국충신’ 소리를 들었다면서 30여분에 걸쳐 전쟁체험담을 들려주었다. 그 요지는 좌우로 지배 권력이 이동하던 갈등의 시기에 소신껏 처신하여 위기를 넘기고 또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그는 한국전쟁 당시 고향인 정읍에 있었는데, 인민군이 밀려 내려와 마을을 점령하자 경찰이었던 육촌동생이 찾아와 숨겨 달라고 청했다. 조판구는 대청 아래에 있는 채소 저장용 굴속에 육촌동생을 숨겨주었다. 그때 면의 남로당 사무소에서 출두 명령을 받고서 갔더니 자기를 면의 남로당 지도책으로 맡기는 것이었다. 제주도에서 좌익 활동을 하다가 온 오아무개라는 사람과 함께였다. 그 뒤 인민군이 물러가고 다시 국군치하가 되자 학도호국단에 붙잡혀 갔는데 맞아죽을 것을 각오하고 있을 때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다.

그 학생놈들이 막 나를 그냥 몽둥이루 때릴라구 얻어놀라구 그러. 다른 사람이 엎어져서 뚜덜겨 맞는다, 그 다음 차례가 나여. 아- 그래 그 사람이 인제 일어나서 저리 끌구 가. 인제 저- 가들 다가 데리꾸가. 불기짝 몽둥이루 뚜덜겨서. 그리구는 나를 막 끄집어 가. 아- 갈라구 허는 찰라에 문이 빼긋이 열려. 아- 그러드니 우리 면장, 축진대장, 아- 그 축진대쟁이 들어오더니 우루루 허드니 내 손목을 잡드니,

“조동지-”

그리어. 동무라고 안 허고, 동지라 그러. 아- 그러드니 아- 그 축진대쟁이 날더러, 학생들을 보고 뭐라 허느냐 하면,

“이 분이 사상이 틀려서 교육을 받으러 간 것이 아니다. 교육을 받으러 간 것은 강제로 선출이 되얏고. 갔다 와서 면 지도책 노릇을 하면서 자기 재종동생, 경찰, 대한민국 경찰을 자기 집에 숨겨 놔다가 중-요현 정보가 있으면 이리라, 저리라, 지시한 양반이 이 양반이다. 그러디 학생들이 그런 것을 자세히

알고 다스러야지. 무조건, 걸만 보고 다시리면 씨냐? 조동지 갑시다.”

아- 그르드니 막, 축진대쟁이 내 손목을 잡드니 막 끌구 나가. 아- 나가드니 나를 데리다 놓고. 아- 그렇게 축진대 사무소에 가서 기냥 그 간부덜이 뺩- 둘러앉았어. 아- 그래 내가 들어가닝게. 떠억 허니 저기 가서 명단이 저렇게 붙여있는데. 축진대장, 부대장, 뭘, 뭘 동원부장, 뭘 부장, 뭘 부장, 명찰이 있잖아. 아- 그래드니 나보고 동원대장, 동원부장. 우리 먼 동원부장. 그래 내가 이 국충신 말을 들은 만히여.²¹⁾

면에서 축진대장을 맡은 인사가 이렇게 나서서 자신을 감싸줌으로써 조판구는 목숨을 부지함은 물론 새로 동원부장 직책을 맡게 되었다. 그렇게 그는 ‘이국충신’ 노릇을 하게 된 셈이었다. 그때 인공치하에서 함께 지도책 일을 했던 오아무개가 찾아와 매달리며 자기를 살려 달라고 했다. 인간적으로 모른 척할 수 없었던 조판구는 그를 국군에 지원병으로 추천하여 입대하도록 주선해 주었다. 그렇게 군대에 들어감으로써 그는 좌익 전력을 씻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그 뒤 오아무개는 군을 제대하여 어머니와 함께 고향에 정착했는데 자기 은혜를 잊지 않고 근간에 이르기까지 고기 말린 것을 소포로 보내주었다고 한다.

이상 한국전쟁 당시 조판구가 펼친 행적은 탁양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배권력의 교체와 이념대립의 틈바구니에서 무난히 살아남았다고 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탁양선의 경우와 비교하면 조판구는 좀 더 정면으로 그 상황을 감당함으로써 양쪽의 인정을 함께 받은 쪽에 해당한다. ‘이국충신’으로 요약되는 그의 행적은 한국전쟁에 후방의 남성이 겪었던 또 다른 전쟁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상 남녀 화자가 전하는 전쟁체험담에 나타난 남성과 여성의 전쟁의 양상을 살펴보면 하나의 뚜렷한 차이를 발견하게 된다. 여성이 겪은 전쟁이 ‘생활을 짊어진 ‘안의 전쟁’이었다면, 남성이 겪은 전쟁은 전선과 후방이라는 서로 다른 전쟁터를 움직이며 ‘세상을 감당했던 ‘바깥의 전쟁’이었다고

21) 앞의 책, 370면.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쟁이라 하면 후자를 떠올리는 것이 상례일 것이다. 특히 남성들에게 있어 전쟁이란 것은 적과 맞서고 이념과 맞서는 전쟁이야말로 유일한 전쟁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여성이 담당했던 전쟁의 모습은 작은 자취조차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본 여러 이야기들이 보여주는 역사의 진실은 그와 차이가 있다. 그 진실이란 무엇인가 하면 여성들이 감당했던 ‘안의 전쟁’이 남성들이 겪은 ‘밖의 전쟁’ 이상으로 힘들고 또 중요했던 진짜 전쟁이었다고 하는 것이다.²²⁾

한 여성 화자가 남편의 전쟁체험에 대해 이야기한 뒤 던진 다음의 말은 심상하게 여길 일이 아니다.

그랬는데 그 안에 나는 고생한 걸 그 이루 다 말을 못해요. 그이는 편안했
죠 이제 시방뜨기 얘기가 뭐냐하면

“나 고생한 걸 아느냐?”

내가 그러면

“아 일 많이 한 걸 알지.”

“일 많이 한 게 문제가 아니고 밥, 일단 쌀이 없으니까 배가 고프고 또 우리 모녀가 있으니까 그 방에서 자질 못하지 않느냐? 남의 집에 가서 껴 자야지. 당신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그거는 예측을 못하지만은 군대에서 옷 쥐서 옷 입지,” (……) 그래서 그다지 전쟁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곱게 있었지 않았냐?”²³⁾

말 그대로다. 남성에게 어떻게든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주어졌고 제 몸을 이리저리 혼자 움직이면 되었다면 여성들은 먹을 것 입을 것을 다 직접 챙겨 만들어야 했고 제 몸뿐 아니라 가족까지 나서서 챙겨야 했다. 여성들에

22) 이성숙은 한국전쟁에 대한 젠더별 경험과 기억을 논하면서 여성들이 후방에서 피난과 이산의 고통을 온몸으로 겪는 가운데 성 억압적 상황에 따른 수난에 노출되는 등 보이지 않는 수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었음을 강조한 바 있다. 이성숙, 앞의 논문, 140~149면 참조.

23) 2009년 2월 26일,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에서 신순옥(가명, 여, 1928년생) 구연. 신동훈·이홍우·구미진 조사.

비하면 전쟁터에 나선 남성의 삶은 오히려 편안하고 고운 것이었다는 저 말을 누구라도 쉽사리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4. 남성과 여성의 전쟁기억, 그 사이의 간극

문학적 관점에서 전쟁체험담을 살피는 데 있어서는 이야기 내용에 나타난 전쟁의 상황 외에 사람들이 어떻게 전쟁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 삶에 대한 어떠한 태도와 인식이 깃들여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제 지금까지 살폈던 여러 사연들과의 관련 속에서 전쟁을 보는 남성과 여성의 시각에 어떤 간극이 자리잡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삶을 규정해 왔는지를 짚어보기로 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선적인 화두가 될 만한 것이 ‘나와 타자’의 관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이라는 극한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타자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면서 행동했는가의 문제이다. 특히 나를 둘러싼 1차적 관계의 표상으로서의 ‘가족’의 문제를 주목할 만하다. 여성과 남성의 전쟁 기억이 확연히 갈라지는 지점이기도 하다.

여성과 남성의 전쟁기억 속에서 나와 타자에 대한 인식에는 주목할 만한 차이가 확인된다. 여성들의 전쟁기억 속에는 언제나 가족과 주변사람이 있다.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으며 시댁식구와 친정식구가 있다. 그들은 내 몸 이상으로 신경을 써서 감당해야 하는 존재였다. 대다수 여성들은 늘 그들을 마음속에 넣어둔 채로 그들을 짚어지고서 움직여 왔다고 할 수 있다.²⁴⁾ 그것은 전쟁 당시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뒤에도 쭉 그러했던 것이니, 김성연이 평생토록 마음속에 남편과 자식들을 담고서 아프게 움직여온 것은 단

24) 이임하는 구술사적 관점에서 여성의 전쟁체험을 살피면서 ‘남성 부재의 현실’을 주요한 특징으로 든 바 있다(이임하, 앞의 책, 2004, 65~84면 참조). 수많은 남성들이 전장으로 끌려감으로써 여성들이 남성 없이 가정을 책임져야 했던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이는 우리의 현지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된 사항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남성이 부재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컨대 아내의 마음속에는 늘 남편이 크게 자리잡은 상태에서 걱정이 떠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난다. 그리하여 그들은 전쟁체험을 구술함에 있어 끊임없이 남편과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적인 사례가 된다. 이에 대해 남성들은 어떠한가 하면, 그들의 전쟁 기억 속엔 '나' 자신이 있을 뿐 가족을 비롯한 타자는 의미 있는 존재로 부각되지 않는다. 그들에게도 아내와 자식이 있고 부모형제가 있을 터이나, 화자들이 그에 대하여 신경을 써서 말하는 모습과 만나기 어렵다. 가족들은 기억 속에서 사라진 채 '나'만이 움직이고 있을 따름이다. 어디를 움직이는가 하면, 자기의 활동무대인 바깥세상을. 그들은 마치 저 혼자 전쟁의 상황을 헤쳐온 것처럼 말하고 있거니와, 때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전쟁 상황을 마치 빛나는 자기실현의 장처럼 여기는 것으로 느끼게 될 정도다.

'나'와 타자, 특히 '나'와 가족의 문제와 관련하여 여성과 남성의 전쟁기억에서 보이는 한 가지 두드러진 차이가 있다. 여성 화자들 가운데는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가족 구성원의 전쟁 체험을 구연한 사례가 많았다. 전주의 전창현 화자는 남편이 백마고지 전투를 지휘하여 승전을 이룬 사연을 치밀하고 꼼꼼하게 구연했으며, 가평의 신순옥 화자는 남편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패전한 뒤 고생 끝에 살아 돌아온 사연을 마치 자신이 겪은 일인 양 길고 생생하게 구연했다. 양주의 엄정옥 화자는 인민군한테 붙들려갔다가 살아온 오빠의 사연을 역시 생생하게 구연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들이 남편을 비롯한 가족이 겪은 일을 마치 자신의 일인 듯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서 제 기억의 일부로 삼았다는 뜻이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을 둘러싼 타자에 대해 마음을 열고 있었던 것이다.²⁵⁾ 이에 대해 그간 필자가 수집한 남성 화자의 전쟁체험담 가운데 자신이 아닌 다른 가족구성원의 체험을 기억의 대상으로 삼아 화제로 삼은 자료는 한 편도 없었다. 제3자가 경험한 사건을 흥미 차원에서 전한 사례가 몇몇 있을 따름이다. 전쟁 하에서 그 가족들 또한 기막힌 여러 사연을 겪었을 것임에도 남성들의 기억 속에 그 자취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은 그들이 자신을 둘러싼 주변의 타자에 대해 마음을 닫고 무관심했음을 보여주는 표징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남성들에게

25) 여성이 남성의 체험을 자기 이야기로 구연하는 것은 주체적 포용보다는 '내면화'나 '동일시'라는 시각에서 볼 여지도 있다. 이 부분의 심리적, 사회적 맥락은 더 깊이 따질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중요한 것은 여성들이 남편을 비롯한 가족에 관심을 가지며 그 삶을 자기 내면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소통과 포용의 몸짓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시각이다.

는 자기와 타자를 구분 짓는 ‘분리의 서사’가 폭넓고도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다음으로 살필 것은 전쟁에 대한 기억이 어떠한 정서적 특성을 함축하고 있는가의 문제다. 이 지점에서 남녀의 기억은 다시 한 번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여성의 전쟁기억이 시련과 고난에 집중하면서 힘들고 서러웠던 시절을 무겁고 아프게 환기한다면, 남성들의 전쟁 기억에 얽힌 정서는 오히려 재미와 신명에 가까운 면이 보인다. 여성들의 전쟁기억에 깃든 아픔이나 회한의 정서에 대해서는 재론을 생략하거니와, 남성들의 정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만하다.

앞서 박태문과 서병하, 탁양선, 조판구 등의 전쟁체험담을 소개했는바, 돌이켜 살펴보면 그 담화들은 예외 없이 자량과 즐거움이 깃들어 있는 ‘흥미진진한’ 이야기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함께 밥을 먹던 동료가 한순간에 죽어나간 것조차 아주 흥미로운 기억을 이루며, 처신을 잘하여 인공 시절과 수복 시절에 무난히 살아남은 것 또한 아주 자랑스러운 기억이 된다. 좀 과장하여 말하자면 무엇 하나 즐겁고 신나는 기억이 아닌 것이 없으니, 전쟁 참전 중에 배가 너무 고프고 졸려서 쓰러질 뻔했던 장면이나 전투에서 포 공격을 받아 부상을 당한 아찔한 장면 같은 것도 지금의 그들에게는 두루 유쾌한 자랑스러운 기억일 따름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지금 청중들에게 그때 자신이 얼마나 놀랍게 그 어렵던 상황을 헤쳐 왔는지를 일종의 ‘무용담’으로서 제대로 과시하고 있는 중이다.²⁶⁾ 요컨대 많은 남성들에게 있어 전쟁경험은 일종의 ‘훈장’과 같은 것으로 마음에 깃들어 있는 것이니, 그것은 전쟁을 깊은 트라우마로 간직하고 있는 대다수 여성들의 경우와 선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다.²⁷⁾ 같은 시절에 나란히 전쟁을 경험했음에

26) 이 글에서는 자료가 정리 보고된 네 편의 사례를 다루었으나, 현지조사 과정에서 남성들이 전쟁경험담을 구연함에 있어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상황과 자주 접한 바 있다. 설화를 대상으로 한 현지조사에서 전쟁체험담 구연 의사를 나타내는 남성 화자들이 꽤 많았는데, 일단 이야기를 시작하면 놀랍고 신명나는 ‘무용담’ 형태로 구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청중의 반응에 이랑곳없이 자기자랑 식의 사연을 일방적으로 펼쳐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성향은 이른바 ‘전쟁유공자’들이 전하고 있는 회고담들에서 두드러지게 확인되는 것이기도 하다.

27) 남녀의 전쟁체험담 구술을 비교한 이성숙 또한 남성 화자들이 ‘고난’에 집중하는 여성들과 전쟁경험을 ‘전훈’으로 인식하며 자랑스러워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이

도 불구하고 여성과 남성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판연히 다른 세상을 살았던 것이니,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적 상황에 얽힌 가장 깊고도 본질적인 분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마음속 깊이 깃들여 있어 잘 드러나 보이지 않음으로 해서 더 굳건하게 존속돼 온 우리 안의 분단이다.²⁸⁾

끝으로 한 가지, 전쟁기억 속에 깃들어 있는 이념과 욕망, 그리고 ‘사람’의 문제에 대해 잠깐 짚어본다. 자세한 분석적 논의는 생략하거니와, 이 또한 남성과 여성의 기억에 있어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일반 남성들의 기억에 있어 두드러진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념과 욕망이다. 그들에게 있어 적은 ‘우리편 : 상대방’이라고 하는 진영 논리에 따라 이미 결정되어 있다. 단순화시켜 말하면 ‘빨갱이’가 곧 적이다. 그들은 죽이거나 내몰아서 물리쳐야 하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는 존재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적을 향해 총을 쏘고, 적을 잡아서 넘기며, 적을 피해 숨어 다닌다.²⁹⁾ 그들에게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가 하면 자기 자신이 그다. 나 자신이 살고 봐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동선을 결정하는 기본 준칙이다. 그리하여 실질적으로 볼 때 그들의 삶을 심층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이념의 문제라기보다는 욕망의 문제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나의 생존과 나의 욕망을 위협하는 존재란 모두 적이라고 하는 사고이다. 자기를 중심으로 하여 움직이며 타자와는 경계를 설정하는 ‘단한 삶’의 속성을 이루는 사유구조이다.³⁰⁾

성숙, 앞의 논문, 138~139면. 본 논문에서 제시한 사례들과 맥이 통하는 특징이다.

- 28) 앞서도 언급했지만, 이 연구 결과는 보통의 일반 화자들을 대상으로 삼아서 전쟁을 어떻게 기억하며 풀어내는가를 담화 양식(style) 차원에서 검토함으로써 도출한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전쟁피해자와 같은 특수체험자를 대상으로 삼아 객관적인 사실 분석 위주로 수행되었던 구술사적 연구가 도출해낸 결과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구술사적 연구는 남성과 여성 모두를 전쟁 피해자로 보는 인식이 두드러진 쪽이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한 더욱 폭넓은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라 하겠다.
- 29) 남성 화자들이 전쟁경험을 전함에 있어 ‘빨갱이’에 대한 적대감을 축으로 한 이념적 성향을 짙게 나타낸다는 사실 또한 이성숙이 단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이성숙, 앞의 논문, 134~136면.
- 30) 남성들의 전쟁 체험과 전쟁 기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 보이는 이와 같은 자기중심성은 다분히 사회적 맥락에서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사회구조

여성들의 전쟁기억에 있어서도 이념과 욕망은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예컨대 ‘빨갱이가 적이라는 것은 대다수 여성 화자들의 생각 속에 기본 전제로 작용하고 있는 요소가 된다. 우선 나 자신이 살고 봐야 한다는 것 또한 여성이라 해서 예외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자료를 세심히 살펴보면, 여성의 기억과 의식 속에서 남성과는 다른 의미요소를 감지할 수 있다. 이념을 보기에 앞서서, 나 자신을 내세우기에 앞서서 ‘사람’을 보는 사유방식이 곧 그것이다.

그즈에는 새각시 (오른 손을 모아 내보이며) 화장품이란 거이, 똑 연지 한 개, 분 한 개, 구루분 한 통, 그래. 그래갓고 절에 그, 딱 뇌른 [조사자 : 시집갈 때] 향. 화장품이란 거이 그래. 총각 집이 사쥐. 구루분 한 통, 연지 한 통, 분 한 통. 그르른 인자 우리는 얼굴이 히서 인자 분은 안 보리고, (뺨에 연지를 찍으며) 연지만 찍고 인자, 크림만 쪼끔 볼랐어.

그릇는다 아, 반란군 가시내들 오드만, 절에 와서 요-래 [조사자 : 아 여자도 있어, 반란군이] 아이-고, 가이나들이 얼-매나 이빠다고. 참-, 이빠. 말도 잘하고 얼매나 이쁘디. 짝-기통 같애. 사무, (두 팔로 둥그렇게 해보이며) 요런 것들이. 그래갓고 (고개를 살짝 빼며) 요-리 디다 보드만은,

“(얇전하게) 이 아줌마도요, 화장한다요.”

이라디만 싹 훔쳐가뿌리드라고. (웃음) 싹 훔쳐가비리. 가이나들이 저, (오른 쪽을 가리키며) 범왕 와서 있을 때 보면, 뭐 이런 디는, 그런 인물 읍어. 똑똑하고 막, 어-매 인물도 좋아 고마.³¹⁾

그래 쏘아서 밥을 이런 구밥을 해서 퍼 내놓고 밭에 밭에 나가서 무수를 뽑아다가 장국을 끓이고 (웃음) 옥수수는 큰 가마에다 한 가마니 돼. 일곱 놈인가? 다 빠졌으니 뭐. 그래이 한 가마이 되는 그걸 내다 씻기달래. 저 마당에다가 함태기 이래는 거 구밥 모두 내다놓고 거다 다 건져다 담아놓고 밥을

속에서 자기 위주로 움직여온 경험이 전쟁이라는 극한상황 속에서 이렇듯 자기중심적이며 배타적인 욕망으로 표출되었다는 뜻이다.

31) 2008년 12월 29일, 경남 하동군 화계면 용강리에서 이순녀(가명, 여, 1935년생) 구연. 김종균·김경섭·박현숙 조사.

인제 뭐, 그랬더니 뭐 찰부지가 뭐 있는 대로 인제 우리 먹는 반찬 있는 대로 인제 해 뇌주는 기, 아주 우리 조선 나와서 이렇게 잘 먹기가 처음이래. 장국도 맛있고 이렇게 잘 해 먹기, 잘 먹는 게 아주 처음이라고.

아주 잘 먹었다고 이래민서 밥이 남음이 싸달라 그래고 장하고 싸달라 그래고 먹고는 그 배랑에 옥수수를 지만큼 다 갈라져요. 다 갈라쥐고는 그래도 가자 소리 안 하고 가는 길을 어느 산으로 어떻게 가면 북쪽을 가는 걸 갈쳐 달라는 거야. 그래 오빠들이 나가서 이, 이쪽으로 내려가면 저, 방림 그쪽으로 가니까 내려가면, 가지 말고 이 쪽으로만 곧장 가면 북한산을 갈 수 있으니까 강릉 쪽을 나가고 북한산을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시라고, 그러니까 아이 알았다고, 고맙다고 그러고 간 다음에는 가자 소리 안 한 게 고마워서. (웃음) 다 고맙다 하지 뭐. 마커 그 청년들이 붙잡고 앞세우면 가야지 우쭐 거여. 안 죽을라면 가야 되는 거여.

그래 아주 가자 소리 안 한 게 고마워가지고, 그렇게 고맙다고 하, 잘 가라고, 제발 잘 가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인물이 좋습디다. 다 사람들이 잘나고 북쪽 사람들이 인물이 좋아요. 잘나고 마음씨는 다 참 지금 말따나 남북을 갈라놔서 우리가 그렇지 마음은 다 한마음이지. 우리 마음이 아니라 그러면서 겁내지 말라고 우리보고. 무서워 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일하라 그러민서는 그래 부엌 앞에 와서 불도 쪼고 뭐 그 밤을 까가주 와서 이래 굴려서 귀 먹고 뭐 이래민서 우리보고 우리도 똑같은 이 한민족인데 우리 이름이 달라서 그러니까 겁내지 말라고. 이래민서 그렇게, 그렇게 그래 해 싸 짊어지고 간 기 그거 본 기 눈에 선행요.³²⁾

앞의 인용은 보급투쟁을 나왔다가 화장품을 보고 탐내는 여성 반란군(빨치산)한테서 여성으로서의 한 인간의 모습을 보는 장면이며, 뒤의 인용은 폐잔하여 후퇴하던 인민군들에게 밥을 해주는 과정에서 그들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임을 확인하고 있는 대목이다. 비록 전쟁에서 서로 적이 되어 있으나 그들도 똑같은 인간임을 느끼며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은

32) 2009년 10월 17일,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에서 최희옥(가명, 여, 1934년생) 구연. 박경열·유효철·나주연·김아름 조사.

남성 화자의 체험담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관념을 내세우기보다 경험을 바탕으로 대상을 응시하며, 이념이 아닌 '사람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여성적 사유가 작용했다고 할 수 있는 모습이다. 인간을 향해 마음을 여는 그러한 사유는 저절로 생겨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앞서 말했던 바, 내 몸에 앞서 가족을 챙겨 품었던 삶의 방식이, 그리고 그 속에서 형성된 '고통에 대한 감수성'이 이념적으로 상대방에 서있는 타자까지를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손을 내밀어 품을 수 있게 한 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분리의 서사'가 아닌 '포용의 서사'가 발휘하는 힘이다.

남성과 여성이 전쟁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대하여 이렇게 특징을 양분하는 관점은 무리한 것일 수 있다. 남녀 할 것 없이 생존의 위협과 고통 속에서 힘겹게 전쟁 상황을 헤쳐 왔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 진실일 것이다. 이 글에서 굳이 한정된 자료 속에서 남성과 여성의 서사를 분리하여 차이점을 강조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의 편을 가르기 위해서가 아니다. 오랜 삶의 과정을 관통하며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을 수 있는 분리의 서사를 냉철하게 응시함으로써 그것을 넘어서 진정한 동반과 통합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기 위해서이다.

5. 맺음 : 분단의 서사 또는 서사의 분단 넘어서기

좌우의 이념 대립은 전쟁을 낳았고, 전쟁은 수많은 죽음과 크나큰 고통을 남겼다. 정치사회적인 분단, 이념적 분단이 야기한 비극이었다. 하지만 우리의 삶과 역사에 얽힌 분단이란 정치사회적이고 이념적인 부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와 더욱 가까운 곳에, 일상적이고 인간적인 차원에도 넓고 깊게 깃들여 있다.

이 글에서는 전쟁을 겪은 세대의 남성과 여성 사이에 깃들여 있는 내적 분단의 요소를 짚어보고자 하였다. 그 결론을 단순화하여 말하자면, 분단과 전쟁의 시절을 명백히 자기중심적으로 움직여온 남성들의 사유와 동선에 '분리의 서사'가 작동함으로써 그들과 가족 사이에, 나아가 그들과 세상사

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가로놓였다고 하는 것이다. 전쟁 속의 여성들에게 있어 항상 그 옆에 남편과 자식, 시댁식구와 같은 가족이 있었고 그들을 챙기기 위한 분투가 이어졌던 것과 달리 남성들은 많은 경우 가족을 포함한 타인들은 2차적 존재로 여긴 채 제 자신의 생존과 전진에 관심과 행동을 집중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항상 자기 자신이 있으며, 전쟁의 포화 속을 죽지 않고 헤쳐 나온 사연이 일종의 무용담과 같이 자랑스럽게 이야기되곤 한다. 여성들의 전쟁 체험담 속에 늘 짐져야 할 가족과 있고 험난한 ‘생활’이 있는 것과 비교되는 양상이다.

문제는 분단의 서사, 또는 서사의 분단이라고 하는 벽을 어떻게 허물어 넘어설까 하는 것인데, ‘나’와 함께 ‘또 다른 나’로서의 가족을 몸과 마음으로 품어왔던 여성들의 삶에 작동해 온 ‘포용의 서사’를 주목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닫힌 몸과 마음을 열어 나의 가족을, 이웃을, 그리고 세상 사람을 끌어안는 노력이 이루어져야만, 그렇게 내 안으로부터의 열림과 통합이 이루어져야만 진정한 소통과 치유, 통합의 삶이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를 둘러싼 벽이 강고할 때, 나의 욕망이 배타적으로 우선시될 때, 결국은 갈등과 반목만이 남게 될 것이다.

이 글에서 제시한바 분리의 서사로서의 남성의 서사와 포용의 서사로서의 여성의 서사 사이의 경계가 단지 육체적 성별에 따라 나뉘는 것이 아님을 지적해 둔다. 남성이 포용의 서사를 발현할 수 있고, 여성이 분리의 서사를 발현할 수 있다. 미처 유의해서 드러내지는 못했지만, 전쟁체험담을 구연한 남성 화자들과 여성 화자들한테서 그러한 특징을 볼 수 있는 단서들이 없지 않았다. 다시 강조하지만, 중요한 것은 편을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설 길을 찾아 나아가는 일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강진옥·신동훈·김현선·전경옥, 『양주의 구비문학 2 자료편』, 박이정, 2005.
- 김경학 외, 『전쟁과 기억 : 마을 공동체의 생애사』, 한울, 2005.
- 김귀옥, 『월남민의 생활 경험과 정체성 -밑으로부터의 월남민 연구』, 서울대 출판부, 1999.
- 김귀옥 외, 『전쟁의 기억 냉전의 구술』, 선인, 2008.
- 김현아, 『전쟁과 여성-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속의 여성, 기억, 재현』, 여름언덕, 2004.
- 신동훈 외, 『도시전승 설화자료 집성』 1~10, 민속원, 2009.
- 윤택림, 『인류학자의 과거여행 : 한 빨갱이 마을의 역사를 찾아서』, 역사비평사, 2003.
- 윤택림 편역, 『구술사, 기억으로 쓰는 역사』, 아르케, 2010.
- 이균옥 외, 『20세기 한국민중의 구술자서전』 1~6, 소화, 2005.
- 이임하, 『여성, 전쟁을 넘어 일어서다』, 서해문집, 2004.
- 이임하, 『전쟁미망인, 한국현대사의 침묵을 깨다』, 책과함께, 2010.
- 표인주 외, 『전쟁과 사람들-아래로부터의 한국전쟁 연구』, 한울아카데미, 2003

2. 논문

- 김귀옥, 「지역의 한국전쟁 경험과 지역사회의 변화-강화도 교동 섬 주민의 한국전쟁 기억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한국산업사회학회, 2006, 40~71면.
- 김성례, 「여성주의 구술사의 방법론적 성찰」, 『한국문화인류학』 35-2, 2001, 31~64면.
- 김예선, 「‘살아온 이야기’의 담화 전략-삶의 구조화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19, 고전연구학회, 2009, 279~300면.
- 김종근, 「지리산 인근 여성 생애담에 나타난 빨치산에 대한 기억」, 『인문학논총』 제47집, 건국대 인문학연구원, 2009, 209~230면.
- 박경열, 「제주 여성 생애담에 나타난 4·3의 상대적 진실」, 『인문학논총』 제47집, 건국대 인문학연구원, 2009, 231~254면.
- 박정석, 「전쟁과 ‘빨갱이’에 대한 집단 기억 읽기」, 『역사비평』 2002년 여름호, 역사문제연구소, 2002, 336~352면.

- 박찬승, 「한국전쟁과 진도 동족마을 세등리의 비극」, 『역사와현실』 제38권, 한국역사연구회, 2000, 274~308면.
- 신동훈, 「경험담의 문학적 성격에 대한 고찰 : 현지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4, 한국구비문학회, 1997, 157~182면.
- 신동훈, 「역사경험담의 존재양상과 문학적 특성-6.25체험담을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24집, 2011, 7~61면.
- 안태운, 「딸들의 한국전쟁-결혼과 섹슈얼리티를 중심으로 본 미혼여성들의 한국전쟁체험」, 『여성과 역사』 제7집, 2007, 49~85면.
- 염미경, 「전쟁 연구와 구술사 : 아래로부터의 한국전쟁 연구를 위한 새로운 방법론」, 『동향과 전망』 제51호, 2001, 210~237면.
- 윤정란, 「한국전쟁과 장사에 나선 여성들의 삶」, 『여성과 역사』 제7집, 2007, 87~122면.
- 윤형숙, 「한국전쟁과 지역민의 대응: 전남의 한 동족마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제35집 2호, 2002, 3~29면.
- 이성숙, 「한국전쟁에 대한 젠더별 기억과 망각」, 『여성과 역사』 제7집, 2007, 123~164면.
- 이용기, 「마을에서 한국전쟁 경험과 그 기억-경기도의 한 ‘모스크바’마을사례를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6, 역사문제연구소, 2001, 11~55면.
- 정근식, 「한국전쟁경험과 공동체적 기억 -영암 구립권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5권 2호, 2002, 165~214면.
- 천혜숙, 「농촌여성 생애담의 주제와 생애인식 양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 2001, 227~267면.
- 천혜숙, 「농촌여성 생애담의 문학담론적 특성」,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5, 2007, 227~267면.
- 한정훈, 「한 여성 빨치산의 구술생애담을 통해서 본 정체성의 서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50집, 2011, 359~388면.

Men and Women in History Based on Experiences of the Korean War

Shin Dong-Hun

This study observed the characteristics shown in the experiences and method of speaking of the men and women in the stories that tell historical experiences by using the experiences of the Korean War gathered in field surveys as the material. Regarding the same historical events, this study observed how men and women had different experiences each other and they have given different meanings to the experiences.

There was a serious difference that could not be overlooked between men and women shown in the main documents of Korean War experiences. To sum up the main points of the difference, the women have shouldered the heavy responsibilities of their families and lives. In contrast, the men generally have taken care of themselves and moved around in the war. Women in the war always had families such as their husbands, children and in-laws and struggled to take care of them. On the other hand, this study showed that the men regarded others including their families as secondary, and then concentrated their attentions and behaviors on their own survival and progresses. In remembering and telling about the war, the women remembered their families and the people around them, and told about 'hardships' related to them. In comparison, the men put themselves in the core of the stories, and would remember and narrate them as if their war experiences were interesting the 'heroic exploits.' This difference has shown that internal divisions of life between men and women were extremely big.

The problem is how it will be possible to break down and transcend the barrier called the narrative of division, or division of narrative. For this, it is necessary to focus on the 'narrative of tolerance' working on the women's lives that have embraced their families with their minds and bodies as 'the other side of them.' It can be said that true communication and integration will be made only after

opening their closed minds and bodies and cuddle their families, neighbor and people in this world, and achieving openness and integration inside themselves. Of course, it is required for the profound remorse for 'division inside us' that lies between the life and perception.

Keywords: Korean War, historical experiences, campaigning experiences, evacuee experience, war memories, method of speaking, family, narrative of division, narrative of tolerance

접수일자: 2012. 8. 31 심사기간: 2012. 8. 31~2012. 11. 20 게재결정: 2012. 11. 20
